

CBS Rainbow 플랫폼 확장 전략 Android Auto, Apple CarPlay 개발

김동희 CBS 정보시스템부 플랫폼개발팀

2024년 5월 CBS는 방송사 최초로 라디오 앱에서 Android Auto와 Apple CarPlay를 지원하도록 업데이트했다. 모바일 플랫폼 자체 개발을 통해 플랫폼 확장 전략을 세우고 있는 CBS 플랫폼개발팀이 어떤 이유로 Android Auto와 Apple CarPlay 지원 업데이트를 단행했는지 소개하려 한다.

라디오 이용 현황

수년간 글로벌 미디어 업체를 선두로 영상 콘텐츠가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이에 따라 라디오 매체 이용 빈도는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으며, 요즘은 라디오 수신기가 있는 가정을 찾는 것이 더욱 어려워진 실정이다.

라디오 이용 행태를 다음 몇 가지 통계를 통해 자세히 살펴보자.

방통위, 「2023 방송매체 이용행태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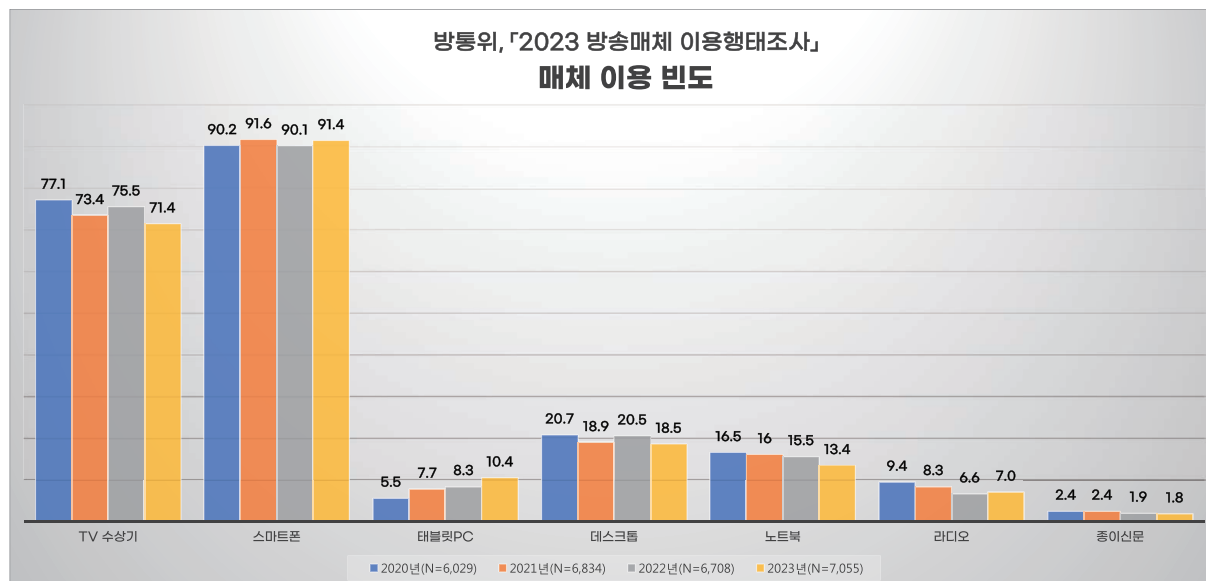


표 1. 매체 이용 빈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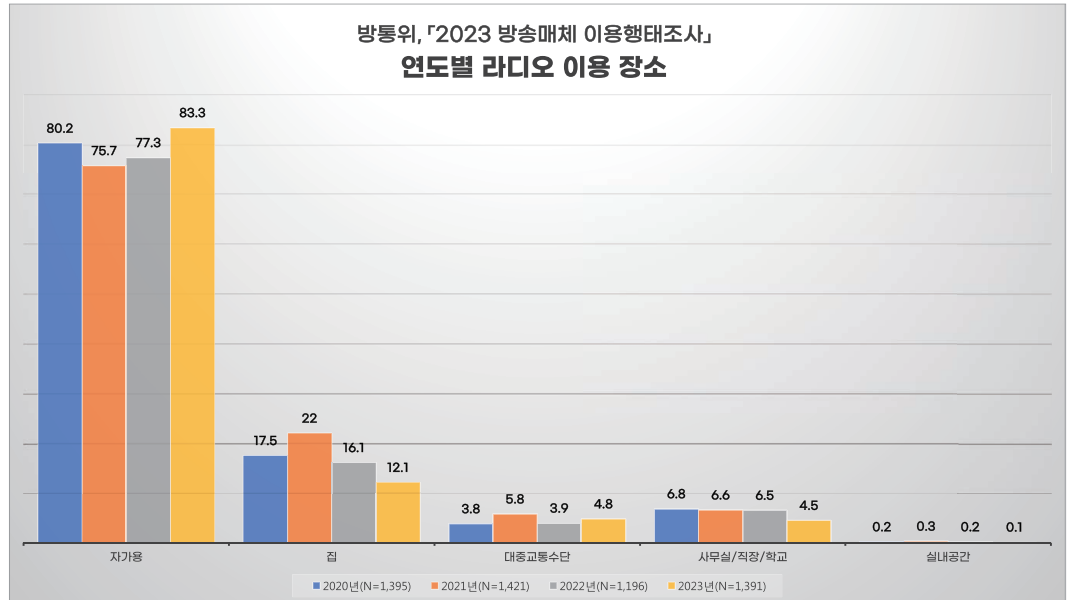


표 2. 연도별 라디오 이용 장소

방통위의 조사 자료에서 발췌한 [표 1, 2]를 살펴보면 지난 4년간 라디오 매체의 이용 빈도는 하락세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 통계에서 주목할 만한 것은 ‘라디오 이용 빈도가 2023년 코로나를 끝으로 반등했다는 점, 특히 자가용에서의 이용 빈도가 큰 폭으로 증가했다는 점’이다.

● 갤럽리포트 - 마켓70 2023 (2) 미디어·콘텐츠·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18종 이용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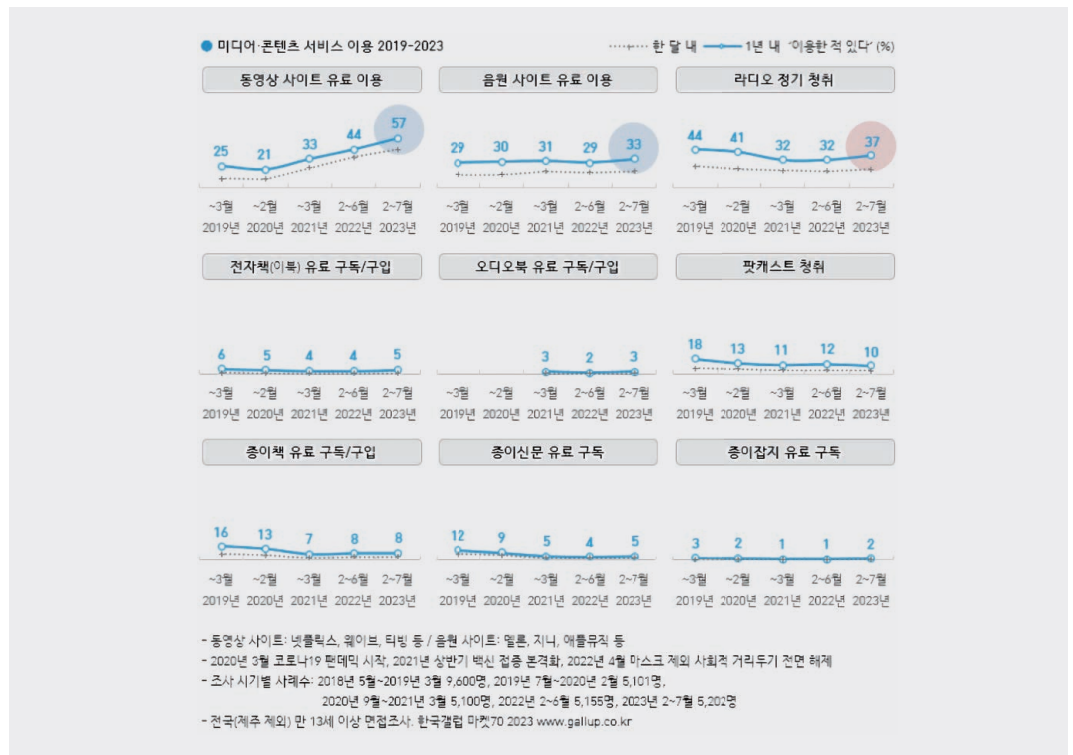


표 3. 미디어 콘텐츠 서비스 이용

갤럽리포트에서 조사한 자료에서도 라디오 정기 청취가 2019~2022년까지 하락세를 유지하다가 2023년 상승세로 전환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갤럽은 해당 이유를 ‘코로나19 팬데믹이 끝나면서 통근, 외출, 여행 등 자동차 이용 빈도가 늘었고, 자가 운전자의 라디오 청취도 잦아진 것’으로 설명한다.

라디오는 오래전부터 위기였지만 여전히 주된 업무를 하면서 곁에 두고 들을 수 있는 괜찮은 선택지 중 하나이다. 특히 자동차에서 그 효과가 두드러진다. 라디오 시장에서 가장 큰 영역을 차지하고 있는 분야가 자동차라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최근 자동차 업계는 차량용 소프트웨어(인포테인먼트) 개발에 힘을 싣고 있는 모양새다. 올해 개최된 CES 2024에서도 자동차 제조사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 각자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내보였다. 다가올 미래에는 라디오뿐만 아니라 정차 시 동영상을 감상할 수 있는 서비스, 심지어 콘솔 게임도 개발될 것이다. 자동차에서 소비할 수 있는 콘텐츠란 곧 오디오였던 과거와는 사뭇 달라질 모습이 예측된다.

인포테인먼트 동향

Mercedes, MBUX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벤츠는 자체 개발한 운영체제 MB.OS에서 실행되는 MBUX Virtual Assistant를 선보였다. Audible(아마존 팟캐스트 자회사), Amazon Music과 협업하여 화면을 구성하고 시연하는 모습이다.



BMW, 새로운 디지털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공개

BMW는 XREAL과의 협력으로 탄생한 웨어러블 증강현실 글라스, 에어콘솔 게이밍 플랫폼과 협력해 개발한 차량 내 게임 등을 선보이며 더 다양한 콘텐츠를 즐길 수 있다는 것을 홍보했다.

벤츠, BMW뿐만 아니라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폭스바겐, 도요타도 자체 OS를 개발하며 차량에서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할 것이다.

차 안에서 즐길 거리가 많아질 테니 운전자로서 환영할 만한 소식이다. 하지만 라디오 방송업계에도 희

소식이 될 수 있을까. 십수 년 전까지만 해도 차 안의 절대 강자였던 라디오는 현재 유튜브 뮤직, 멜론, Spotify 등 유료 음악 스트리밍 플랫폼과 경쟁하고 있다. 운전자의 선택을 두고 경쟁해야 할 대상은 이제 동영상 플랫폼, 게임 회사 등으로 머지않아 그 수와 범위가 더 늘어나게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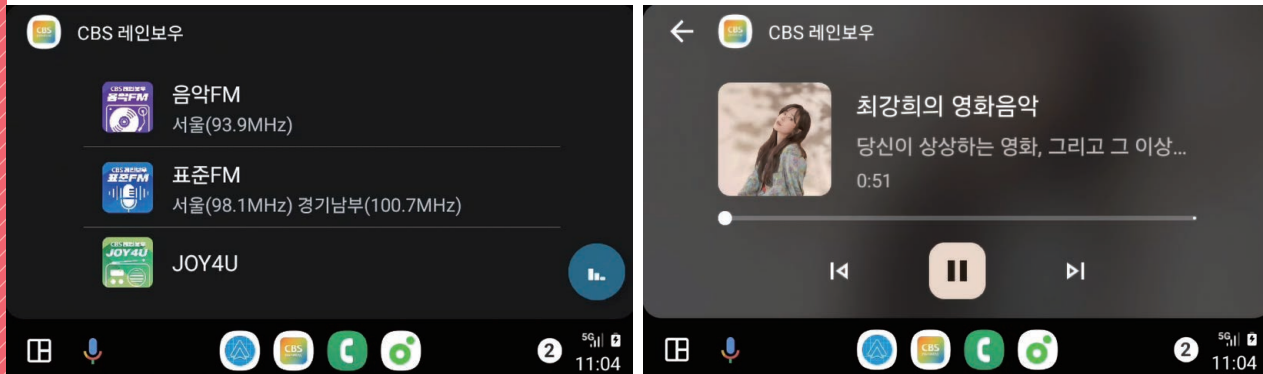
Android Auto, Apple CarPlay 개발

글로벌 자동차 업계가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개발한다고 할 때, 국내 중소 방송사와 협업하기는 쉽지 않다. 하지만 Android Auto, Apple CarPlay 개발은 미리링 방식으로 제약없이 자동차의 터치스크린을 통해 콘텐츠를 공급할 수 있다. 기존에 서비스 중인 Android, IOS 용 Application을 수정하여 배포하면 된다.

영국의 자동차 연구 및 컨설팅 회사 SBD automotive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2022년 기준 90퍼센트가 넘는 자동차에서 Android Auto, Apple CarPlay를 지원한다. 최근 현대, 기아 자동차 그룹은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업데이트하여 Android Auto, Apple CarPlay 무선 연결 기능을 지원하도록 했다. 각 장치의 자동시작 설정 여부에 따라, 자동차에 타기 전 마지막으로 들었던 오디오를 탑승 후 자연스럽게 이어서 재생할 수 있다.

Android Auto, Apple CarPlay를 대부분의 차량이 지원하는데, 라디오 앱 이용자가 차량에 탑승할 때마다 오디오가 끊긴다면, 이용자는 그 앱에 대해 ‘차에 타기 전까지만 쓰는 앱’이라는 인상을 가질 수 있다. 같은 상황에서 멜론, 유튜브 뮤직 등의 앱에서는 오디오를 끊김 없이 들을 수 있다면? 라디오 앱 대신 멜론이나 유튜브 뮤직을 선택할 충분한 이유가 된다. 아마 업데이트 이전의 CBS 레인보우를 비롯한 대부분의 ‘라디오 앱’이 비슷한 처지에 있을 것이다.

그런데 CBS 레인보우는 이제 Android Auto, Apple CarPlay를 지원한다. 그럼으로써 청취자들이 차량에 탑승했을 때도 라디오 청취의 연속성을 보장할 수 있다. 이번 업데이트를 계기로 멜론, 유튜브 뮤직 등 스트리밍 서비스로 유출되던 일부 사용자들의 귀를 CBS 레인보우에 묶어놓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레인보우 Android Auto 화면

데이터로 살펴본 업데이트의 효과

레인보우 일일 활성 사용자 데이터[표 4]를 살펴보면, Android Auto의 실행 자료를 수집한 4월 11일 전후로 일일 활성 사용자의 수치는 크게 변동이 없다. 다만, 레인보우 이용자 중 20%가량이 Android Auto 기능을 통해 차내에서 방송을 들었다는 사실은 확인할 수 있다.

다음 데이터를 살펴보자. 월별 평균 청취 시간[표 5]을 보면, Android Auto를 지원하기 시작한 2월 말 이후 평균 청취 시간이 2월 이전보다 약 15% 증가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앱 이용자 1인당 앱을 통해 방송을 청취한 시간이 Android Auto 배포 이후 15%나 증가했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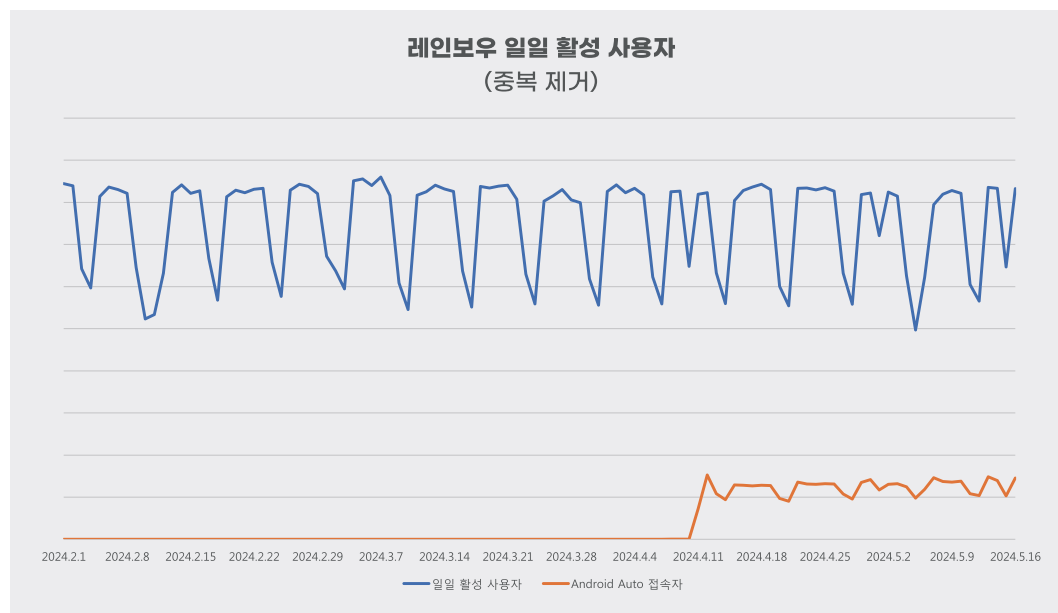


표 4. CBS 레인보우 일일 활성 사용자

평균 청취 시간이 늘어난 것이 Android Auto 지원 업데이트의 영향임을 보여주는 자료가 있지만, 아쉽게도 공개할 수 없는 내부 통계 자료라 그래프를 신지 못했다. 이 자료가 담고 있는 가장 주요한 정보는 CBS 레인보우의 시간대별 청취자 수이다. 이 자료를 검토한 결과, 여러 시간대 중 특히 평일 출근 시간과 퇴근 시간의 동시접속자 수가 Android Auto 지원 업데이트를 기점으로 대폭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차량 이동이 많은 시간대의 청취 시간 연속성이 증가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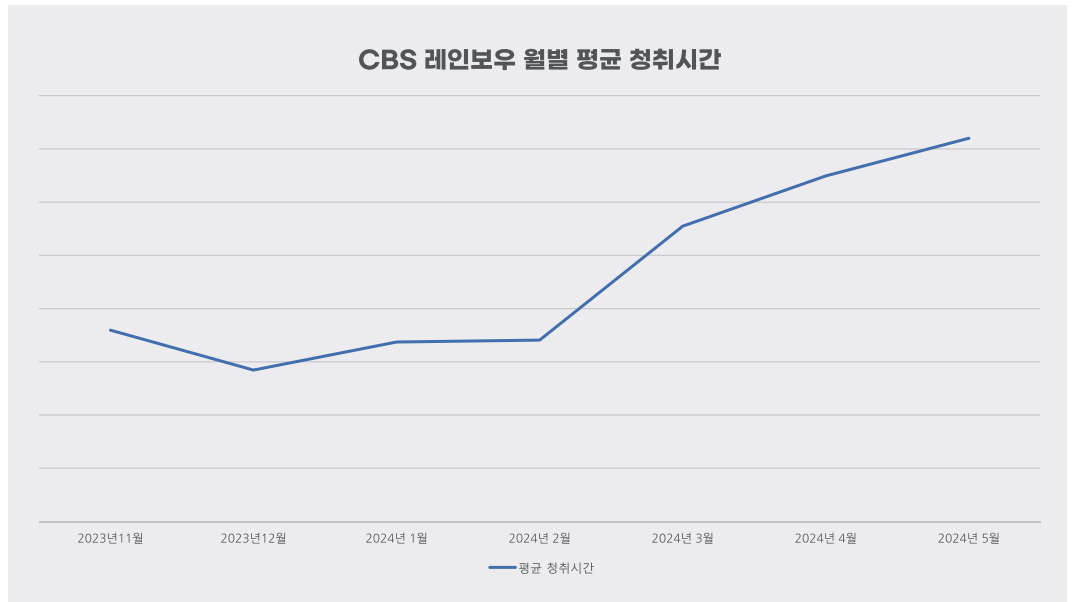


표 5. CBS 레인보우 월별 평균 청취시간

보완점과 플랫폼 고도화 계획

CBS 레인보우 Android Auto, Apple CarPlay에는 현재 실시간 선곡 정보가 노출되지 않는다. Android Auto 초기 배포 버전에서는 표출이 됐었지만 여러 가지 서버 이슈가 발견되어 잠시 중단해 놓은 상황이다. 추후 업데이트 땀 실시간 선곡 정보도 표출될 것이다.

CBS 레인보우는 ‘라디오 재중계 애플리케이션’이라는 정체성의 탈피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자체 데이터를 확인해 보면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하고 화면을 다시 보지 않는 청취자들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사용자 다수가 라디오를 듣는 데에만 앱을 이용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앞으로는 CBS 레인보우에 참여형 서비스를 추가해서, ‘듣기만 하는 라디오 앱’에서 벗어나도록 하고자 한다. 즐길 거리가 많은 앱으로 거듭날 CBS 레인보우가 청취자로부터 더 많은 선택을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

CBS Rainbow

